

포용적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 환기하다

전북도, 포용국가와 지역여성정책 포럼 개최 다양한 의견수렴 통해 세부과제·실천방안 모색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주관하는 '정책포럼'이 27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시·군 여성정책 분야 공무원,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 도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전했다.

'포용국가와 지역여성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포럼은 여성의 현실과 포용국가의 성평등정책을 연계해 살펴봄으로써 포용적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여성정책의 필요에 대응하는 세부과제와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 정책포럼은 행정현장 여성가족부 장관의 '포용국가와 성평등 정책'이란 주제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전희진 부연구위원(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의 '포용국가와 여성의 불안

정 노동', 정유진 교수 (전북대학교 아동학과)의 '전북지역 저출생과 돌봄'이라는 주제발표로 이뤄졌다.

행정현장 장관은 기초연설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현실, 성평등 정책의 주요 이슈, 성평등 정책의 중요성, 지역에서의 성평등 실천전략과 더불어 향후 지역사회에 필요한 과제들을 소개했으며, 제1주제 발표자인 전희진 부연구위원은 여성노동 현실을 토대로 전북지역 여성 노동을 분석하고, 지역여성정책의 관점에서 포용적 정책모델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했다. 제2주제 발표자인 정유진 전북대 교수는 보육의 사회적 중요성과 성평등문제를 전북의 보육현실에 연계해 발표했다.

또한, 주제발표에 대해, 이수인 소장(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주재로 이윤애 센터장(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엄영숙 교수(전북대), 김지혜 회



27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시·군 여성정책 분야 공무원,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 도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용국가와 지역여성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장(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조경옥 연구위원(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이혜숙 교수(한일장신대)가 참여해 지역사회에서의 성평등정책 실천 방안, 여성일자리 창출과 불안정

여성노동 해소를 위한 실천방안, 성평등에 기반한 저출산 해소 및 돌봄 문화 조성 방안 등을 모색하는 토론회의 장이 됐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꿈돋움 영재교육한마당 개최

전북도교육청은 28일 전주대학교 희망홀에서 '2019 꿈돋움 영재교육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모든 학생들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잠재된 영재성을 일깨우고 영재교육원의 다양한 프로젝트 자료를 공유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는 전북지역 영재교육원에서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도내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프로그램은 ▲영재수업 ▲영재체험 ▲놀이마당 등 3개 부스로 운영됐다.

영재수업은 총 13개 부스로 구성해 지역 영재교육원에서 이뤄지는 영재수업을 30분으로 압축해 운영했다. 초등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재교실 프로그램 당 사전 신청을 통해 4명, 현장접수 4명 등 모두 8명 이내로 참여 학생 수를 제한해 진행했다. 단, 1인당 최대 2회 신청이 가능하다.

체험부스에서는 총 20개의 활동을 구성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체험형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을 통해 영재교육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넘어 숨어 있는 영재성을 발견하고 진로 탐색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놀이마당은 수학, 과학, 정보, 발명과 관련된 보드게임 체험마당으로 운영됐다. /정은성 기자



플러스건설 나춘균 대표가 27일 전주대학교 유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7백만원을 기탁했다.

플러스건설, 전주대에 장학금 700만원 기탁... "가정형편 어려운 유학생들 위해"

(유)플러스건설 나춘균 대표가 27일 전주대학교 유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7백만원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이날 나춘균 대표가 기탁한 장학금은 전주대에 재학 중인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의 등록금 및 생활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오래전부터 우즈베키스탄과 특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나춘균 대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며, "앞으로도 매년 우즈베키스탄 학생을 비롯해 우수한 유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플러스건설은 토목건축공사/조경공사/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

사/소방시설공사, 부동산 임대 등 토목시설물을 전문으로 하는 전라북도 대표 건설업체로 1992년 설립됐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9월부터 플러스건설 사내(직원)기숙사를 제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누구나 손쉽게 배워요'

전북대, 전북 최초 '외국어 글쓰기 센터' 설립 논문 상담·교정·글쓰기 교육·교과자료 개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외국어 글쓰기 센터를 설립, 10월 중순부터 다양한 논문 글쓰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지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운영되는 외국어 글쓰기 센터는 영문 논문에 대한 상담 및 교정, 그리고 정기적인 논문 글쓰기 교육, 연구방법에 관한 워크숍 등을 실시 진행하고, 글쓰기 지도를 위한 교과 및 교육 자료도 개발한다. 특히, 웹을 기반으로 한 논문 상담이 이뤄져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학생 등 대학 구성원 누구나 글쓰

기 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논문을 업로드 하면 컨설팅이 진행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는 현재 구축 중에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논문 등 전문적인 외국어 글쓰기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져 센터를 설립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학생 및 구성원들의 영어 논문 글쓰기 능력을 증진시키고, 교원들의 논문 발행에 대한 편의를 제공,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 성찰협력수업 토크콘서트 성황리 마쳐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26일 교사교육센터 마음연구홀에서 '교과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위한 2019 성찰협력수업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된 성찰협력수업 토크콘서트에는 전주교육대학교 교수진, 현장 수석교사, 도교육청 관계자, 재학생 등 1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부재용 교수(초등교육과)의 교·수·평 일체화 특강에 이어, 분과별 성찰협력수업 사례공유 및 마이크로칭 토

크 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김우영 총장은 "우리 대학은 교사교육자, 현장교사 및 예비교사의 협업 등으로 일체화 실천사례의 확산을 기대한다"며, "그 밖에도 육성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기여 관련 프로그램, 취약계층과 관련한 고등교육 기회확대, 지역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육대학교는 국립대학육성사업 일환으로 교과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통한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 펼쳐

전북도교육청이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을 펼친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자전거 안전장구 착용 및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등으로 각급 학교에서 가정에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학생들의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한 이용 안전수칙과 가정통신문 발송 및 안전수칙을 담은 현수막 게시를 권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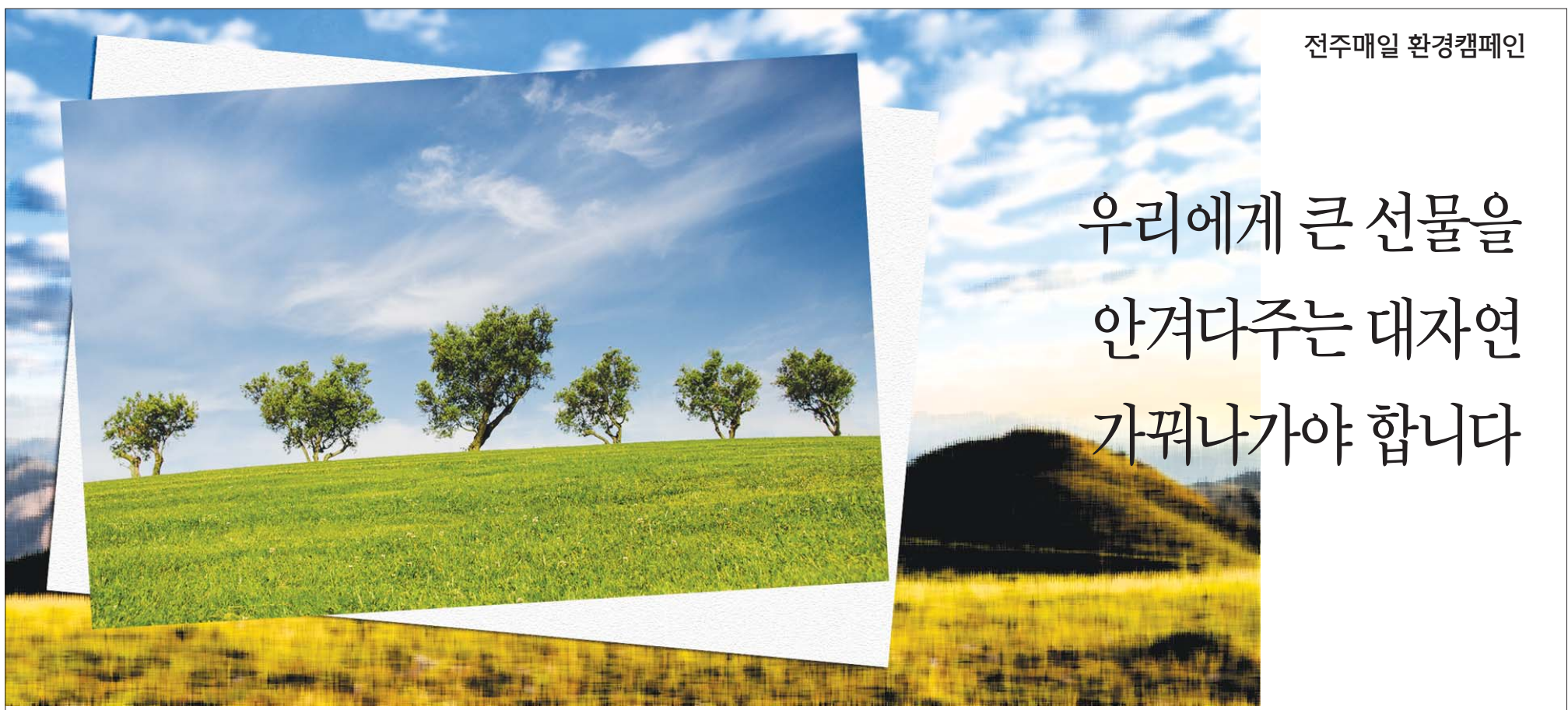
또 안전모, 팔꿈치·무릎 보호대 등 안전장구 착용 중점교육과 미화용자 지도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학교별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전북인전

매뉴얼을 활용한 자전거 안전교육, 월요일 첫 수업 전 5분 안전교육, 학부모 연수시 자전거 안전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으로는 △자신의 몸에 맞는 자전거 이용 △안전장구 반드시 착용 △횡단보도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너기 △밤에는 전조등이나 후미등 켜기 △좁은 길에서 큰길로 나갈 때는 정지해 좌우 확인하기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자전거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자전거 안전장구 착용 및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의 교통안전 의식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